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우리 연구원에서 2022년을 여는 목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우리 연구원 상임이사)와 함께하는 “공자 이야기”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강좌로 준비하셨습니다. 강의는 2021년 마지막 목요일인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6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공자 이야기”

- ◎ 개 강 : 2021년 12월 30일(목) 18시 30분
- ◎ 강의시간 : 90분 내외
-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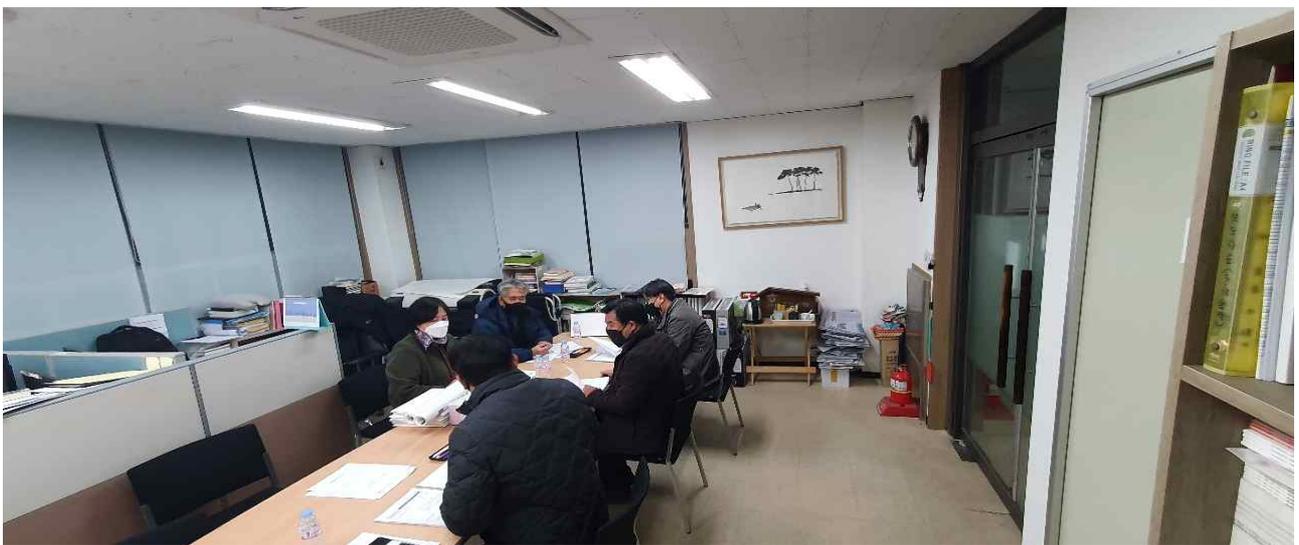
◎ 강좌목록

-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 2강 난신적자_공자와 춘추시대
-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5차 운영위원회 개최

우리 연구원 2021년 5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목)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원 정관 개정(안) 기초 심의와 2022년 신년 기념품 제작 및 전달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2022년 1월 예정된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 “모두를 위한 내일을 위한” 2022년을 열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전주 답사
- 남고모종(南固暮鐘) 이야기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후백제 옛 성터인 남고산성

임실 슬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좁은목 근처에서 물줄기를 불러 전주천을 형성하고 한벽루 아래 절벽을 휘돌아 나가면서 물의 깊이를 더한다. 물의 깊이와 수량을 불린 초엽의 전주천은 조금 아래에 보를 만든 때문에 깊지만 속이 흰히 보일정도로 맑음을 유지하고 있다.



한벽루에서 내려 본 초엽의 전주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보를 막은 지점의 깊고 맑은 전주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전주천을 따라 신흥다리에서 완산다리를 지나 싸전다리를 지나는 동안 내내 맑은 시냇물은 마음을 상쾌하게 해 준다. 또한 바람에 하얀 머리를 하늘거리는 억새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으며, 하얀 두루미와 물오리가 곳곳에서 날갯짓하며 경치에 경치를 더해주고 있다. 물론 아름다운 경치는 자세히 보아야 눈에 들어온다.

한벽루 방향으로 걷다가 치명산이 눈에 들어오는 지점에 이르면 우측으로 산이 보인다. 바로 남고산이다. 여기에는 후백제의 옛 성터라고도 하는 둘레 5.4km의 남고산성이 있고 또한 여기에 전주팔경이 있다.

그런데 이곳 팔경은 다른 팔경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팔경들은 눈으로 보이는 경치를 말하지만 이곳 팔경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팔경의 명칭도 남고모종(南固暮鐘)이다. 이는 서산에 해가 누엣누엣 넘어 갈 때 남고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말한다. 또한 이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경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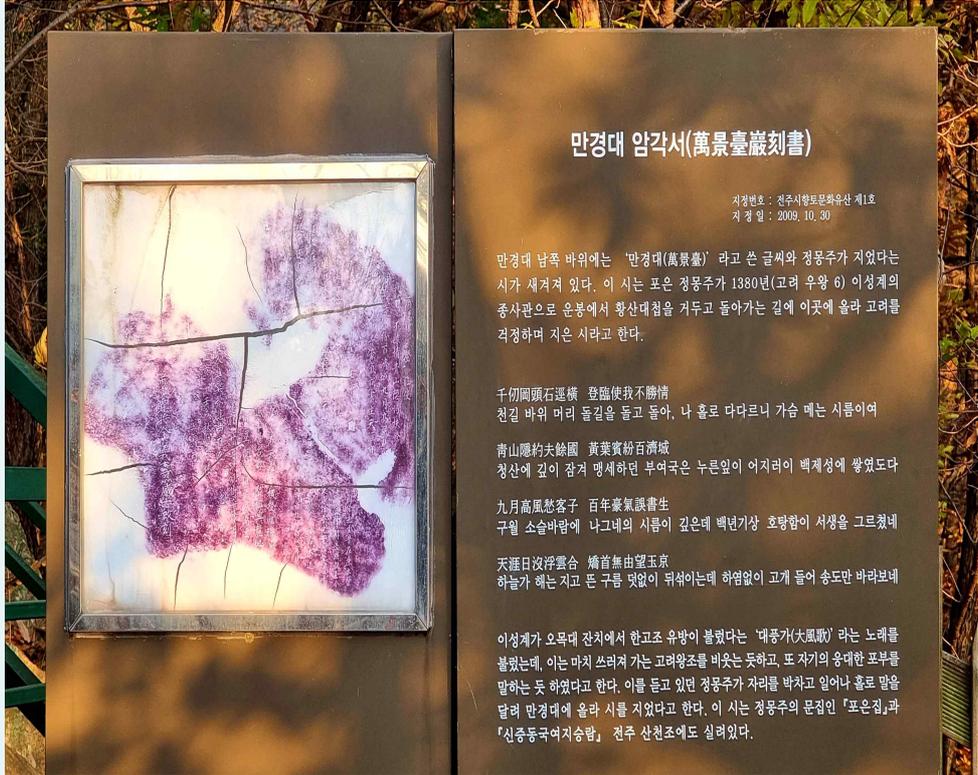
답사 일행은 이곳을 가기위해 전주교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 먼 길은 아니고 남고산 입구까지는 완만하고 쉬운 마을길이었지만,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법 가파러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들 힘든 내색 없이 남고사까지 도착하였다.



남고사 경내에 모인 답사단



만경대에 위치한 암각서. 정몽주 시가 있다.



정몽주는 1380년 고려 우왕 시절 이성계의 종사관으로 그를 따라 남원 운봉까지 왔다. 당시 이성계는 운봉에서 대승을 거두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전주에 들러 지금의 오목대에서 전승기념 잔치를 베풀었다. 이성계는 자리에서 한나라 유방이 불렀다는 '대풍가(大風歌)'가 불렀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은근히 표현한 것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을 달려 남고산 만경대에 올라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그 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천길 바위 머리 돌길을 돌고 돌아, 나 홀로 다다르니 가슴 메는 시름이여
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하던 부여국은 누른 잎이 어지러이 백제성에 쌓였도다.
구월 소슬바람에 나그네의 시름이 깊은데 백년기상 호탕함이 서생을 그르쳤네
하늘가 해는 지고 뜬구름 덧없이 뒤섞이는데 하염없이 고개 들어 송도만 바라보네

전주팔경에 해당되는 남고모종에는 경치의 아름다움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다음에 계속)

